

스님노후생활 제도적 보장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의료 검진과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 이하 재가연대)는 1월 24일 집행위원회의를 열고 스님과 종무원들의 노후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문제를 상반기 중점과제로 채택, 관련사업들을 진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재가연대는 경북대의대 불자교수, 불자약사보리회와 함께 상반기부터 나이든 스님들에 대한 정기건강검진을 실시 가능한 지역부터 벌여나가는 한편, 스님요양시설을 운영 중인 사찰이나 단체들을 집중 홍보하는 등, 범종단적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여론조성에 나선다.

또 교구본사나 문중 단위의 의료 공제회 조직을 지원하고, 이를 재가불사단체와 연결해 지속적으로 유지, 운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윤남진 재가연대 기획실장은 "어른 스님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면서 스님의 노후복지에 관한 교계의 관심을 자연스럽게 유도해 내겠다"고 말했다. 강유신 기자



◁김명규(오른쪽)·김명화 부부는 금강경 등의 독경을 통해 뇌졸중을 이겨냈다.

죽다 살아난 것은 지극정성으로 간병한 아내와 함께 경전을 독경함으로써 가능했다"면서 "전신마비라는 역경 속에서도 독경을 게을리 하지 않은 노력에 대한 부처님의 가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 구룡사에 다니고 있는 김명규·김명화 부부는 예전처럼 똑같이 걷고 땀 흘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서원하며 매일 아침 예불과 천수경을 독경하고 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a.com

“독경으로 전신마비 이겼어요”

김명규씨부부 투병기 ‘뇌졸중 석달만에...’ 출간

독경을 통해 병마를 이겨낸 사례를 일기 형식으로 정리한 책이 최근 발간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김명규(54)·김명화(50)씨 부부는 금강경, 화엄경 등 독경을 통해 마비된 신경을 되살아나게 하는 등 병마를 극복한 자신들의 경험을 <뇌졸중, 석달 만에 털고 일어나기>라는 책으로 엮어냈다.

아내 김명화씨는 남편 김명규씨가 97년 10월 31일 뇌졸중으로 쓰러지자 이를 이겨내기 위한 방법으로 돈독한 불심을 바탕으로 독경을 선택했다. 이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살림

병실서 하루 수십번 금강경등 염송 12일만에 휠체어, 90일뒤 팔공산에

에도 불구하고 1인 병실을 고집했다. 독경으로 병마를 이겨내겠다는 김명화씨의 간절한 불심의 발로였다.

이들 부부는 남편 김명규씨가 의식을 회복하면서부터 하루에도 수십 번씩 금강경, 화엄경, 광명진언을 염송하며 마비된 근육과 신경을 되살려 나갔다. 가정에서 매일 예불과 독경을 실천했던 이들 부부의 신행이 병실에

서도 그대로 이어진 것. 먹고 자는 시간 빼고는 일년으로 독경을 했다.

그러자 짝짜할 수도 없었던 남편 몸이 움직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쓰러진지 12일 만에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몸은 회복됐고, 23일 만에 지팡이에 의지해 혼자 걸을 수 있게 됐다.

병원에 입원한 지 61일째 되던 날

김명규·김명화 부부는 손을 맞잡고 병원 문을 나섰다. 독경과 약사어래불 염호를 통해 증세가 호전됐다는 확신을 가진 이들 부부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은 채 팔공산 약사어래부처님을 친견하겠다고 다짐했다.

90일째 되던 날, 팔공산을 찾은 김명규씨는 한계단 한계단을 오를 때마다 느껴지는 고통 앞에서 약사어래불 명호를 염송하며 정상에 올랐다. 아직도 많이 불편한 몸이지만, 이렇게라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그저 감사하게만 느껴졌다.

김명규씨는 “뇌졸중으로 쓰러져



◁통일대화마당은 지금까지 4천여명이 참석,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통일대화마당 100회돌파

좋은벗들, 강좌내용 3권 책으로

2000년 3월 3일 시작된 좋은벗들(이사장 법륜)의 '통일대화마당'이 1월 25일로 100회째를 맞이했다. 통일대화마당에서 펼쳐진 '통일강좌'는 불교시민단체가 나서 통일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북한 사회를 다양하게 조명하는 기회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템플스테이 사찰 1차 25곳 선정

조계종은 1월 21일부터 27일까지 실시를 통해 1차로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 25곳을 선정했다. 조계종의 10개 율도권 경계장 주변 템플스테이 운영 25개 사찰은 △서울=조계사 봉은사 화계사 △인천

선암사 탕화 또 도난당해

전남 순천시 선암사(주지 지혜)의 탕화가 또 도난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수원=전통사 유물사 신록사 △대전

수원=전통사 유물사 신록사 △대전=갑사 △전주=내소사 선운사 금산사 △대구=동화사 직지사 해인사 △광주=대흥사 화엄사 백양사 송광사 미황사 △울산=풍도사 △부산=범어사 내원정사 △서귀포=약천사 △강원도=구룡사 월정사 신흥사 등이다.

원행스님 새회장 추대 원주사암련 정기총회

원주사암련협회는 1월 31일 치악산 구룡사 심검당에서 2002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새 회장에 구룡사 주지 원행 스님(사진)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원행 스님은 “지나해 개신교 측의 원주경찰서 경호실 불상봉안 반대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원주 불교계가 화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며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

서는 원주불교가 화합불교, 참여불교, 생활불교, 수행불교를 기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근 기자

“북한산도로건설 방해 안된다”

서울지법, 대원사·환경연합 패소 판결

북한산관동도로건설반대운동등 벌이고 있는 불교 및 환경단체에게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사법부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제4민사부(재판장 김동운부장판사)는 1월 31일 주식회사 서울고속도로와 LG건설이 대한불교 조계종 대원사, 환경운동연합 간부 등을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피신청인들은 서울의곽순환고속도로 양주군 장흥면 교현리~의정부시 호원동 제4공구(사패산터널 구간 7.48km)에 대한 신청인들의 건설공사를 방해해선 안 된다”며 피신청인들의 현장 출입 금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의 사찰 공사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공사 방해가 이뤄지는 지역은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문제와 상관없어 이와같이 결정했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고속도로는 서울의곽순환고속도로입산~퇴계원 가운데 사패산터널 공사를 대원사, 환경운동연합

등이 환경을 파괴한다며 현장에서 농성을 벌이자 지난해 이들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북한산관동도로 저지를 위한 종교시민연대는 “서울지법에 제출한

묘현사 등 4개사찰 훼손 불가피 도로공, 고창 영취산에 터널건설 추진

전남 고창과 전북 장성 사이에 위치한 영취산에 고창터널 건설이 추진됨에 따라 이 일대의 불교유적은 물론, 묘현사 등 사찰환경이 파괴될 위기에 놓였다.

한국도로공사는 최근 서해안 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가 만나는 지점인 고창-장성 구간을 연결하면서 영취산을 관통해 전남 고창군 고수면은사리와 전북 장성군 시암면 대덕리를 잇는 고창터널을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장성군 묘현사 주지 묘5시 사이 도난당했다는 내용이 신고됐다”고 밝혔다.

비단 바탕에 색을 입힌 지장탱화는 가로 193×217cm 크기로 1849년 조성된 것이다.

선암사는 지난 98년과 99년에도 탕화 5점을 도난당한 적이 있다.

여수령 기자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는 대로 변호사와 협의, 상급 법원에 상고하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9면 강유신 기자

묘현사 등 4개사찰 훼손 불가피

각 스님은 “영취산 일대의 묘현사 등 4개 사찰의 환경과 취사, 망월암 등 10개 사지의 훼손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환경단체와 연계해 이들 사지에 대한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터널 건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강유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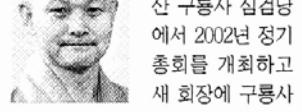
조계사 청년회 절하기 대회

조계사 청년회(회장 정우식)는 19일 오전 7시30분 조계사 대웅전에서 제1회 절하기 대회를 연다.

절하는 방법을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행사는 △6일 ‘절 수행법 교육’-경전스님(양평 범왕정사 주지) △12일 108배 7일 정진 △16일 ‘절 수행의 의미와 공덕’-진락스님(조계사 청년회 기획국장)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합장, 호계합장, 오체투지 삼배 등 세 종목에 걸쳐 치러질 이번 대회는 개인과 단체로 나눠 진행된다.

김주필 기자

원행스님 새회장 추대 원주사암련 정기총회



주지 원행 스님(사진)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원행 스님은 “지나해 개신교 측의 원주경찰서 경호실 불상봉안 반대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원주 불교계가 화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뇌물수수 없었다” 증언

김태복장군 환송심 1차 심리

군법당 건립과 관련해 재판에 계류 중인 김태복 장군의 환송심 1차 심리가 1월 31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법원장 박주범 대령)에서 진행됐다.

장성군 재판에 영관급 재판장이 배석한다는 변호인 측의 이의 제기도 20여일 늦춰져 열린 이날 심리에서 김태복 장군은 일부 유죄가 인정된 뇌물수수 건과 관련해 “김문규 씨로부터 2천만원의 수수했다고 주장하는 군검찰의 주장은 증거조작과 무리한 수사 등으로 사건을 조작한 것”이라며 기존의 주장을 거듭 강조했다.

김장군은 또 여단장 공판에서 2천만원을 수수했다고 주장하는 군검찰 측의 주장과는 달리 1996년 7월 7일 당시 자신은 공판에 있지 않았다는

새로운 사실을 증언했다. 김 장군은 “법회를 마치고 불교TV 촬영팀과 간부들의 격려사시에 참석했으며, 이같은 사실을 당시 촬영팀과 간부들로부터 확인했다”면서 “본인이 96년 7월 7일 공판에서 김문규 씨로부터 2천만원을 수수했다는 군검찰의 주장은 명백한 오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재판장 남재중 중장)는 변호인 측이 이같은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김문규, 극락사 주지 성업스님, 서영오 원사 등 6명의 증인을 전원 채택하는 한편 이번 사건을 빠른 시일 내에 종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2차 심리에 대해서는 추후 지정 공치하기로 했다.

박봉영 기자

토종 오가피의 신비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인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용내닐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연한 20년간 오가피를 키운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 455-7555

수행자를 위한 건강 코르크 수제화신발 “권행”

스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스님전용신발 “만행”

길없는 길위에서 있는 수행자들만을 위한 전용신발 - 권행 만행

건강코르크 신발의 구조와 기능

기존신발 모래사장 건강코르크 신발

◆구조: 反射原理(반사원리)로 만들어 했습니다.
사람의 발바닥과 발에는 63곳의 반사점(경혈)이 (피츠제너월드:반사이론)(약사전강법) 있습니다. 이 반사구에 적당한 마찰이 가하여 질때 집중된 말초신경의 에너지 순환작용을 활성화 시켜 질병은 현저한 치료 효과를 나타내며 가장 탁월한 예방의학의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신발 만행은 발의 반사구를 골고루 민화 자극하여 주는 인체 공학의 설계와 천연 코르크의 뛰어난 특성과 최고급 피혁이 삼위일체를 이루어 신고 걷는 사람의 체중과 적합한 조화가 이루어 지도록 만들어 했습니다.

◆기능: 循環原理(순환원리)로 만들어 했습니다.
우리의 신체에는 혈관의 중형 무진으로 뻗어 있고 이 혈관을 크게 나 누면 동맥·정맥·모세혈관의 3가지로 구분합니다. 동맥은 영양과 산소를 나르고 정맥은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나르고 모세혈관은 동맥이 운반해 온 것을 신체 구성요소의 세포로 전해주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정맥으로 나릅니다. 어느 기관의 부위가 불건강하면 순환 기능이 반드시 불량 현상을 일으켜 말초신경 및 지구인력의 작용에 의하여 노폐물(요소화합물)이 무릎 위 10cm까지 고이게 됩니다. 그때 발의 반사구를 적절히 비벼주거나 자극을 가하면 신장등의 배설기관에 의하여 쌓여있던 노폐물이 체외로 배출되어 집니다.

구입문의 031)742-0296. 742-0297 권행 대표 박동진 합장